조선일보 - 1936 . 10. 25/ 5면/ 5단

니-체와 現代 文化

-그들의 生日을 記念하야-❾

金亨俊

以上에서 나는 極히 粗雜하게나마 니-체의 超人 思想을 紹介하엿다. 그러면 現代에 살고 잇는 우리는 이러한 니-체 思想에서 무엇을 榻取할 것인가? 지금까지 一部의 사람들은 니-체를 野卑한 本能主義者, 低級한 利己主義者라고 불러 왓다.

그것은 니-체의 權力에의 意志를 單히 盲目的, 本能的인 것으로만 誤解한 까닭이다. 젠듸레~의 파시즘的 行動主義도 니-체를 그레케 誤解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의 理想하는바, 超人은 언제나 盲目的 本能의 充溢 때문에 低劣한 享樂에 耽溺는 것을 警戒하며, 거긔서 自己를 統制하지 안으면 안된다고 하엿다. 權力에의 意志는 어대까지나 低俗한 現實 人間을 超克하고 보다 놉고, 새롭고, 强大한 것을 生産하며 創造하려는 意志이다. 우리는 니-체에게서 이러한 生産的 創造的 意志를 배우지 안으면 안된다. 나날의 데카탄的 氣分에 쏠녀드러 가는 우리의 現實에는 니-체의 元氣 潑剌한 生産的, 創造的, 意慾이 얼마나 淸凉한 刺戟을 줄 것인가?

그러타고 우리는 니-체의 思想을 無修件으로 歡迎해서는 안된다. 그는 그 生産的, 創造的인 權力에의 意志를 超人, 더구나 貴族的인 超人의 것으로만 생각하엿다. 여긔에서 超人은 永遠히 우리와의 □□性을 갓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잇서 實際도 生産하며 創造하려는 人間은 貴族들도 市民階級도 아니요. 니-체가 가장 □□하든 賤民 그들인 것이다. 賤民(大象)만이 自己내의 □□한 現實을 超克키 위하야 또는 生存의 새로운 發展을 爲하야 보다 놉고 새롭고 張大한 것을 生産하며 創造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체의 超人의 生産的, 創造的 意志를 賤民의 立場에서 □□(□□)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니-체는 人間 가운대서 高貴한 것과 卑賤한 것의 두 가지 類型을 보앗다. 그러나 그러한 두 가지 類型은 實際에 잇서는 同一人間의 內面에도 潛伏해

잇는 것이다. 高貴한 人間에도 卑劣性이 잇스면 卑賤한 人間에도 高人的인 것이다.

니-체의 超人은 實際로는 그 自身의 內面에 잇는 高貴性과 卑賤性의 鬪爭에서 그리하야 卑賤性의 超克에서 □□한 □□의 □利□인 것이다. 우리들 現實 人間의 內面에는 항상 僕從的이며 小人的, 女性的, 消費的,□□的인 것이 理性의 技能을 抹殺시키고 잇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生産的, 創造的, 技能은 發達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卑賤한 現實的 人間性을 超克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리하야 生産的, 創造的인 새로운 人間性을 □取하지 안흐면 안된다. 우리 時代는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人間, 아니 새로운 英雄을 要求하는 것이다.